

마스크 착용·곳곳에 손세정제... “그래도 결혼은 직접 축하해야죠”

신종 코로나 우려에도 결혼식장은 그나마 복직 사람 많이 찾는 뷔페 피하고 식사 대신 선물로

“결혼은 인연지대사인데 그래도 직접 만나 축하해줘야죠.”

지난 8일 오후 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한 웨딩홀. 가족과 친척,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하객들로 상당히 북적였다.

이 결혼식장에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 20여 건의 결혼식이 진행됐다.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염려해서인지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식장 입구 양쪽에는 10여 개의 손소독제가 비치됐고, 직원들은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달

라고 안내했다.

결혼식장 곳곳에도 손소독제가 비치됐고, 찾아오는 하객들은 스스로 소독제를 이용했다.

여러 하객을 맞이해야 하는 혼주들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고민도 깊었지만 대부분 혼주들이 맨얼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축의금을 전달한 하객들은 많은 사람들이 뷔페를 피하려는 듯 1층에서 식권을 선물로 바꿔서 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하객으로 참석한 양성준씨(53)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사람이 많은 곳은 가능한

피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결혼은 인연지대사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만나서 축하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결혼식을 찾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에는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장을 직접 찾아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었다.

혹시나 하객 자리가 텅 비면 어쩌나 하며 가슴을 졸였던 신랑신부들도 다행히 하객들이 줄지어 찾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지었다.

이날 결혼을 한 신랑 차태성씨(26)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족들 몇명만 맞이하는 결혼식을 생각했는데 마스크를 쓰고라도 찾아준 하객들이 많고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서구의 한 결

혼식장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결혼식장 곳곳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됐고, 많은 하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장을 찾았다.

하객 박모씨(33·여)는 “친구에게 축의금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니 섭섭한 눈치를 보였다”며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 신부는 “축의금을 계좌로 보내면서 찾아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친구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을 찾아 축하했지만 하객 수 감소에 대비해 많은 혼주들이 식권을 줄여 신청했다고 예식장 측은 설명했다.

한 예식장 관계자는 “결혼식 일정 연기를 문의하는 신랑·신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 한 결혼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입구에 배치된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씻고 있다.

들도 있지만 막상 연기하는 분들은 드물었다”며 “미리 신청했던 식권 수는 줄이는 편이어서 보통 신랑 측, 신부 측 각각 200~300장

씩 기본으로 나갔다면 지금은 100여장 정도 줄어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21세기병원 격리 ‘코로나’ 접촉자 25명...“안정적 상태”

“군의관 지원·市긴밀협조”

이용섭 “힘 합해 위기 극복”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들이 격리돼 있는 광산구 21세기병원을 찾아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병원 지하 1층 로비에서 병원측 관계자들로부터 격리된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받고 △의료진 투입상황 △격리 환자들의 불편사항 △병원 애로 △배출쓰레기 처리 상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병원 측은 “국방부에서 군의관 2명과 간호사들이 지원돼 현재 환자들의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격리된 환자들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초기의 일부 불편사항은 모두 해소돼 현재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초기 대응을 맡았던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신종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25명이 격리된 광주 광산구 21세기병원을 방문했다.

질병관리본부가 7일 철수하고 지금은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직접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인 만큼 다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환자들이 격리돼 있는 21세기병원과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의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점검해 필요한 것들은 지체없이 즉각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광주시는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7층 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광주시 및 광산구 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 광산구 어린이집 399곳 17일까지 휴원연장

인접 북구도 내일까지 연장...동·서·남 어린이집은 오늘부터 정상 운영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와 인접한 북구 일대 어린이집 휴원이 연장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생으로 지난 6~7일 이틀간 휴원했던 지역 어린이집 중 북구는 11일까지, 광산구는 17일까지 휴원을 연장한다.

확진자 거주 지역인 광산구는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 39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연장 휴원을 실시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추이를 살펴 휴원 단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확진자 인접지역인 북구(305개소)도 이틀간 휴원을 연장한다.

동구(54개소), 서구(227개소), 남구(140개소)는 10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시는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 맞벌이가정,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는 정상출근 또는 당번제를 실시해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휴원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6일 오전 광주시 한 어린이집에 6~7일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광주시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6~7일 광주 시내 어린이집 1122곳과 유치원 290곳을 전면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체

유치원(290개소) 중 북구(48개소)와 광산구(30개소)는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휴원을 실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휴원 기간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